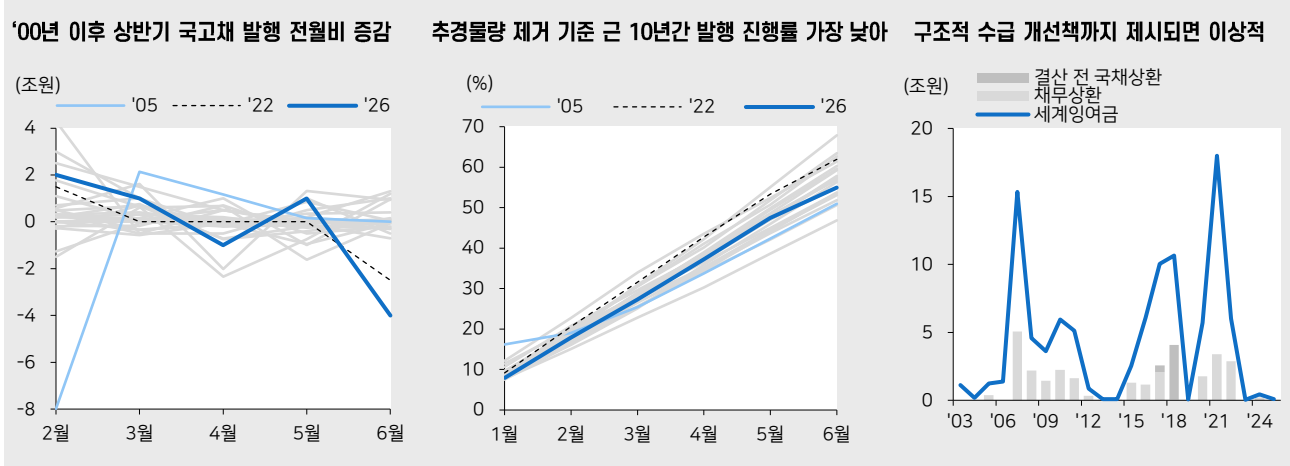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김영준 연구원

국채당국의 강도높은 시장안정 의지 확인



주: (좌, 중) 회색선은 '00년부터 '26년까지 기간 중 국고채 발행 감축 규모가 컸던 3개년도('05, '22, '26)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 (중) 경쟁입찰 외 비경쟁 물량을 포함한 진행률이며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제외하고 비교하기 위해 당초 연간 국고채 발행목표액 대비 진행률로 재산출. '26년 6월은 당사의 추정치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동 사태를 비롯해 통화정책 긴축기에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자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3월 긴급 바이백 이후 추가조치를 단행했다. 6월 국고채 발행을 전월보다 4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결과 다음날 장초반부터 채권시장은 전일의 통화정책 충격을 만회하며 강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기준 '05년 이후로 가장 큰 감축 규모였으며, 특히 수요가 위축된 30년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 국채당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하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 목표치는 연간 발행량의 55~60%인데, 당사가 예상하는 6월 진행률은 54.9%로 밴드의 하단에 밀접하다. 과거 '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현재 진행률을 하회했던 연도가 많지 않다. 이러한 조치가 상반기 발행 축소분이 하반기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익이 있다.

다만 브레이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발행량 조절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예시로 '17~'18년 반도체 호황기때처럼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이 검토되거나, 향후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기반으로 늘어나게 될 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상에 투입하여 미래 적자국채 발행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세계잉여금이 70조원을 기록한다면 부채관리에 30조원 가량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재정은 통화정책 대비 추세적인 금리 하락을 이끌 재료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다면 금리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